

KMI 북방물류리포트

VOL.202
JAN 21 2021

발간년월 2022년 1월 21일(통권 제202호) **주소**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발행인 김종덕 **총괄** 이주호 **감수** 최재선 **담당** 김엄지·유지원 **발행처** 한국해양수산개발원
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 **TEL** +82-51-797-4776 **FAX** +82-51-797-4659



주요 동향

- 러시아 철도 운송량, 지난해 사상 최고치 기록
- 러 철도~항만 환적, 병목현상으로 화물 선적 제한
- 러,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물류 문제가 관건이다.
- 러 아르한겔스크, 여객 운송용 쇄빙선 건조 추진
- 아제르바이잔~러시아 화물, 해상운송 방안 검토
- 아제르바이잔, Argo Express 물류 프로젝트 합류

주요 통계

- 2021년 1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(건·액체화물)
- 2021년 9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*
- 2021년 9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*

* 러시아 극동지역 통계청이 10월 이후 통계자료를 아직 업로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.



주요 동향



러시아 철도 운송량, 지난해 사상 최고치 기록

■ 아시아 물류시장 성장에 따라 러시아 철도는 사상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기록

- 글로벌 물류 위기에도 불구하고, 러시아 철도(Russia Railways)가 지난해 아시아발 유럽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34.4% 증가한 사상 최대의 운송 물동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
- 러시아 철도는 최근 러시아의 컨테이너 운송량은 10억 7,600만 TEU로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2021년 통계작업이 완료되면 총 100만 TEU 이상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
- 글로벌 운송 시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급망에 문제가 일어나 해상 운송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국 제조업체는 러시아 전역에서 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더 많은 상품을 보내는 바람에 러시아 철도의 이용수요가 급증하였음

채수란 전문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실

(9orchid7@kmi.re.kr / 051-797-4790)

참고자료

a) <https://www.reuters.com/business/energy/russias-container-shipments-hit-record-high-amid-global-logistics-crisis-2022-01-11/> (2021.1.20. 검색)

러 철도~항만 환적, 병목현상으로 화물 선적 제한

그림. 러 극동지역 철도~항만 병목현상



자료: <https://expert.ru/2022/01/7/rzhd-vveli-ogranicheniya-na-pogruzku-iz-za-zatorov-v-portakh/>

■ 철도에서 항만으로 환적하는 화물이 몰려 ‘화물량 제한 제도’ 도입

- JSC ‘러시아 철도청’은 올해 1월 기준 항만의 화물 수용력이 3.8% 증가했으나,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터미널 또한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음
- 또한 JSC ‘러시아 철도청’은 병목현상의 원인으로 장비의 오작동, 냉동화물 작업 불가, 선박 입항 지연으로 인한 저장 탱크의 수용력 부족 등을 꼽았음

■ 극동 지역 철도에서 항만으로 환적하는 구간의 병목현상이 장기화

- 이 같은 문제로 듀앙카(Duanka) 역의 바니노트란수골(Vaninotransugol) 터미널의 경우 처리 물량이 평균보다 절반 수준인 하루 263량의 화차를 하역했음
- 포시에트 항만의 경우, 계획했던 하역량의 32%에 불과한 111량의 화차를 처리했음
- 크라보바야(Krabovaya) 역의 RN-마린 터미널 나훗카(RN-Marine Terminal Nakhodka)와 블뤼허(Blucher) 역의 보스톡 병커(Vostok bunker) 터미널은 석유제품을 하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루즈스카야(Luzhskaya) 역의 ‘New Utility Technologies’사(社)는 얼어붙은 석탄을 그래프

버킷(Grab Bucket)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활용했음에도 계획물량(580량) 보다 훨씬 적은 350량의 화차만 처리하였음

- 포르테네르코(Portenergo) 사(社)는 석유 제품이 담긴 탱크를 317개를 처리하고 있음(계획: 388개)
- 우스트 루가 오일(Ust-Luga Oil) 사(社)는 13만 6,000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(계획: 14만 1,000 톤)

■ 흑해 지역은 폭풍우와 강추위 등으로 철도 병목현상이 발생했음

그림. 러 흑해 철도~항만 병목현상



자료: <https://gudok.ru/newspaper/?ID=1592476>

- 흑해에서 취급되는 주요 화물인 석유 제품 중 특정 유형의 석유는 낮은 온도로 인해 얼기 때문에 하역과정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음
- 따라서 해당 지역의 강추위로 인해 석유제품이 얼어 환적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음
- 그뿐만 아니라 폭풍우로 인해 투압세(Tuapse) 항에서는 109만 대가 아닌 400여 대의 화차가 하역되었음
- 러시아 철도청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‘기후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 등이 겹쳐 수출 화물의

적재와 철도~항만 간 환적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

- 화물 처리를 정상화하기 위해 항만 당국과 지속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음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김혜영 리포터,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
(gpdud027@hufs.ac.kr)

참고자료

- a) <http://www.morvesti.ru/news/1678/93382/> (2021.1.17. 검색)
- b) <https://gudok.ru/newspaper/?ID=1592476> (2021.1.20. 검색)

러,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물류 문제가 관건이다.

■ 러시아는 필요한 경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물류 문제가 관건

- 러시아 외무성 제1아시아 부국장은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백신 및 의료장비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는 물류 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음
- 러시아는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, 북한 파트너들과 구체적인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님
- 지노비예프 부국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엔과 유엔 산하 전문기관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. 지난해 곡물을 북한에 제공한 바 있는 러시아는 이러한 형태로 다시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음
-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자국에 침투하는 것을 염려해 엄격한 위생, 역학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북한의 이러한 태도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
- 러시아 측은 북한이 백신 배송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받을지, 물류문제인 배송과 수출을 어떻게 보장하고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물품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
- 세계보건기구(WHO)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 19 확진자나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작년 6월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국가 의료부문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
- 북한은 ‘심각한 사건(serious incident)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부터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, 엄격한 위생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언급했음
- 결국 북한의 이같은 폐쇄조치는 북한에 도움을 주려는 국제적 손길마저 꺼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

채수란 전문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실

(9orchid7@kmi.re.kr / 051-797-4790)

러 아르한겔스크, 여객 운송용 쇄빙선 건조 추진

그림. 아르한겔스크 여객 운송용 선박



자료: <http://dvinanews.ru/-554dua4p>

■ 아르한겔스크와 오네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여객 운송용 쇄빙선 4척을 건조^{a)}

- 2020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여한 지역 책임자 회의에서 아르한겔스크 주 정부는 산업통상부의 ‘임대 우대 프로그램’에 따라 4척의 쇄빙선 건조 사업을 위한 예산을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4척의 여객 운송용 쇄빙선을 건조하기로 합의했음
-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쇄빙선은 평소에는 예인선의 역할을 수행하나 겨울철이나 홍수 기간에는 여객도 운송할 예정임
- 이 쇄빙선은 수심이 얕고 너비가 넓지 않은 우스티예 세베르나야 드비나(Ustie Severnaya Dvina) 지역에 맞게 설계되었으며,
- ‘해군 중앙 연구 및 디자인 연구소’의 시범 운항 결과, 겨울 시즌에도 아르한겔스크와 오네가 수역에서 운항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음
- 이 선박들은 2022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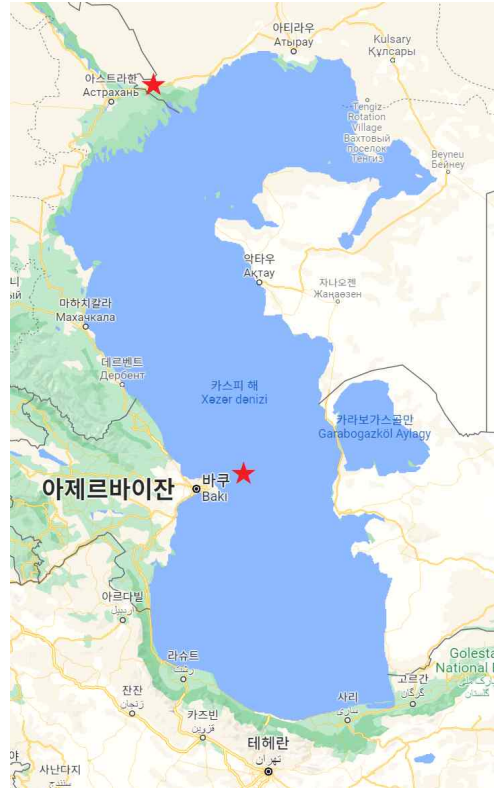
김혜영 리포터,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
(gpdud027@hufs.ac.kr)

참고자료

a) <http://dvinanews.ru/~sb66jg8d> (2021.1.17. 검색)

아제르바이잔~러시아 화물, 해상운송 방안 검토

그림.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러시아 아스트라한 위치



자료: 구글맵을 참고하여 KMI 편집

■ 아제르바이잔 과일, 채소 등 화물 운송을 위해 바쿠~러시아 아스트라한 항만까지 이어지는 해상루트 이용 가능^{a)}

- 카스피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아스트라한 주 로토스(Lotos) 특별경제구역(SEZ) 총괄담당자인 세르게이 밀루시킨(Sergey Milushkin) 이사장은 언론사 스포트니크 아제르바이잔과의 인터뷰에서 아스트라한 항만을 비롯해 러시아 불가강 등 해상운송·내륙수운을 통한 아제르바이잔발 화물 수송 가능성을 제시함
- 밀루시킨 이사장은 아제르바이잔의 채소 수확량이 정점에 이르러 시장에 이를 공급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 철도운송을 통한 공급에는 제약이 있고, 육로 운송 시 국경 통과 및 이동을 포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상품 수송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함
- 이에 따라, 해상운송이 철도·육로 운송을 대체할 새로운 운송루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제르바이잔 화물을 해상운송한 뒤 러시아 내부 내륙수운을 통해 러시아 전역으로 화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함

- 특히, 카스피해를 통한 양국 간 해상운송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, 현재 450개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선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으며, 이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카스피해를 거쳐 냉동냉장 상품을 운송할 수 있을 것이며, 이는 과부하 상태에 있는 아제르바이잔~러시아 육로수송을 통한 화물량을 경감하고, 육상 화물 운임료를 저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

■ 러시아가 조성한 카스피 해 클러스터, 아제르바이잔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경제 및 산업 플랫폼으로 기능

- 아스트라한 주에서 새롭게 조성될 항만경제특구(올라항)와 현재 운영 중인 산업경제특구인 로토스(Lotos) 특별경제구역(SEZ) 2개 구역을 통합한 ‘카스피 클러스터’는 아제르바이잔 자본이 투입된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됨
- 이에 대해 밀루시킨 이사장은, 공공조달 참여를 포함하여 아제르바이잔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 활동 플랫폼으로서 카스피 클러스터가 기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
- 더불어 아스트라한 주 SEZ에 입주할 아제르바이잔 기업들은 각종 세제 및 관세 혜택을 받게 되어 무관세로 러시아 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기업들의 SEZ 내 활동이 더욱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- 그 밖에도, 항만 지대 발전을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알라트(Alyat) 항만과 아스트라한 지역 올라항 간 화물 운송을 포함하여 카스피해를 통한 화물의 실질적인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- 2023년 말부터 아스트라한 항만경제특구(올라항)가 운영될 예정이므로, 운영 활성화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화물 운송량은 카스피해, 알라트항~올라항 등 해상 운송 루트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로토스 SEZ에 대해서는 아제르바이잔 자본의 투자 유치도 계획되고 있는데, 로토스 SEZ와 알라트 항만 간 협력의 경우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어 양측의 기존 투자자들을 맞교환하는 방식의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음
- 현재 로토스 SEZ는 카자흐스탄 및 인도 SEZ의 투자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, 협력 관계에 있는 특별경제구역의 투자자들을 알라트 SEZ로 이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
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az.sputniknews.ru/20220105/kak-porty-baku-i-astrakhani-sposobstvuyut-velicheniyu-gruzoperevozok-437769865.html> (2021.1.18.검색)
- b) <http://morvesti.ru/analitika/1692/89945/> (2021.1.18.검색)
- c) <https://www.sezlotos.ru/about/> (2021.1.18.검색)

아제르바이잔, Agro Express 물류 프로젝트에 합류

■ 아제르바이잔, Agro Express 물류 프로젝트에 합류

- 러시아 연방 경제부에 따르면 1월 17일,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 시행하고 있는 신속한 식량 공급 프로젝트인 Agro Express 물류 프로젝트에 합류한다고 밝혔음
- Agro Express 프로젝트의 장점은 경쟁력 있는 배송조건, 상품운송에서 환적 작업 생략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 따라 물류 장벽을 제거하고, 상품 배송 인프라를 생성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러시아 경제부가 언급했음
- 러시아 경제개발부 Dmitry Volvach 차관은 러시아가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방향으로 수출 루트를 조직하는데 긍정적인 경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. 즉, 러시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로를 열어 관련 국가에 식량 관련 필요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됨
- Agro Express 프로젝트는 EAEU(유라시아 경제연합)를 대상국으로 함
 - ※ 유라시아 경제연합 : 2014년 5월 29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러시아,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 3개국이 창설 조약을 체결한 이후 2015년 1월 1일에 공식 출범했으며, 러시아,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, 아르메니아, 키르기스스탄이 정회원국, 몰도바와 쿠바가 옵저버로 있음
- 러시아 수출센터장 Veronika Nikishina의 구상은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무역량을 고려해 볼 때 매월 두 대의 혼합열차를 이동하면 물자이동량이 충족되며,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할 경우 인접국가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경로가 확충될 것이며, 남북 국제운송 통로에 따라 수출량을 차차 늘릴 수 있을 것임
- 러시아 철도 물류 국장에 따르면 양국 간의 곡물, 과일, 채소류, 화학 및 석유 화학제품의 운송과 환적이 수에즈 운하에 비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음
- 이와 관련해 Agro Express 열차는 2021년 말 시험적으로 러시아-우즈베키스탄-러시아 구간을 통해 물품을 운송하였고, 전문가들의 실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예정임
- 우즈베키스탄은 Agro Express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사업에 착수했는데, 2020년 우즈베키스탄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로 수출되는 채소와 과일의 규모는 연간 약 2억 5540만 달러로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과일 및 채소 수출의 25.3%에 해당하는 수치임
- 양국은 2025년까지 운송물량을 10만 톤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음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menafn.com/1103550840/Azerbaijan-joins-logistics-project-with-Russia-Uzbekistan-on-rapid-food-supply> (2021.1.20.검색)
- b) <https://uz.sputniknews.ru/20210519/uzbekistan-i-rossiya-zapustyat-ekspress-poezd-dlya-selxozproduksii-18803216.html> (2021.1.20.검색)
- c) https://www.kati.net/board/exportNewsView.do?board_seq=93262&menu_dept2=35&menu_dept3=71 (2021.1.20.검색)



주요 통계



표. 2021년 1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(건화물 및 액체화물)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20/2021 증감율
극동지역	11.1 (+2.4%)	6.5 (-1.8%)	17.6	+0.9%
북극해	2.3 (-2.8%)	5.6(-0.7%)	7.9	-1.3%
발트해	10 (+6.1%)	12.3 (+3.4%)	22.3	+4.7%
아조프-흑해	8.9 (+2.2%)	11.1 (+0.6%)	19.9	+1.3%
카스피해	0.3 (-25.2%)	0.2 (-4.0%)	0.5	-13.0%
합계	32.6(+2.7%)	35.7(+0.8%)	68.3	+1.7%

* 주: 극동해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올가, 포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비츠키야가반, 데-카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얀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란데이, 페벡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** 주: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
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표. 2021년 9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***

(단위: 천 달러)

EAEU 코드	품목	해외*		CIS**		합계	
	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01-24	식료품 및 원자재	485,523.5	46,300.1	1,368.3	1,540.0	486,891.9	47,840.1
25-27	광물 제품	1,430,598.5	48,338.4	20,892.9	33,606.5	1,451,491.4	81,945.0
27	연료 및 에너지 제품	1,258,025.8	43,653.1	416.1	144.6	1,258,442.0	43,797.7
28-40	생고무 화학 제품	3,336.9	67,097.7	1,161.2	660.3	4,498.0	67,758.0
41-43	가죽원료모 피 제품	3.3	2,343.4	1.5	269.4	4.7	2,612.8
44-49	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116,537.5	8,352.3	371.3	111.3	116,908.8	8,463.6
50-67	섬유·섬유제 품 및 신발	243.0	57,668.1	73.6	3,061.4	316.5	60,729.6
72-83	금속 및 금속 제품	52,329.1	71,061.1	1,088.4	2,814.8	53,417.5	73,875.9
84-90	기계류	90,364.1	523,718.5	1,976.0	2,841.5	92,340.1	526,559.9
68-71, 91-97	기타	303,776.1	50,374.1	42,886.2	234.8	346,662.3	50,608.9
	합계	2,482,712.0	875,253.9	69,819.2	45,140.0	2,552,531.2	920,393.8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***참고: 러시아 극동지역 통계청이 10월 이후 통계자료를 아직 업로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.
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참고자료

a) [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\(2021.11.15. 검색\)](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(2021.11.15. 검색))

표. 2021년 9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***

(단위: 톤, 천 달러)

EAEU 코드	품목	해외*				CIS**				합계			
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
0302	냉장수산물	135	162.7	-	-	-	-	-	-	135	162.7	-	-
0303	냉동수산물	101,813	233,017.9	342	969	62	103.3	-	-	101,871	233,181.3	342	969
03031	연어	15,834	60,248.1	-	-	39	72.4	-	-	15,873	60,320.5	-	-
030331	광어	310	3,643.4	-	-	-	-	-	-	310	3,643.4	-	-
030332	가자미	747	637.2	-	-	-	-	-	-	747	637.2	-	-
030339	기타 넙치류	1,975	1,606.4	-	-	-	-	-	-	1,975	1,606.4	-	-
030351	청어	11,105	6,795.1	-	-	0	0	-	-	11,105	6,795.1	-	-
030363	대구	7452	21,311.8	-	-	-	-	-	-	7452	21,311.8	-	-
0303670000	명태	35,877	36,615.5	-	-	20	22.8	-	-	35,896	36,638.2	-	-
0303893	농어	15	35.3	-	-	-	-	-	-	15	35.3	-	-
030391	알류	8,513	106,322	-	-	0	0	-	-	8,513	106,322.1	-	-
030399	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	697	1,056.5	-	-	-	-	-	-	697	1,056.5	-	-
0304	생선 필레	9,430	28,867.4	0	0.0	34	77	-	-	9464	28,944.4	75	254.5

0305	훈제 생선, 생선 가루	12	53.8	136	811.6	-	-	-	-	12	53.8	136	811.6
0306	갑각류	5,719	165,138.4	35	266.9	-	-	-	-	5,719	165,138.4	35	266.9
030614, 030633, 030693	게	5,202	159,520.2	-	-	-	-	-	-	5,202	159,520.2	-	-
0307	조개류	2,994	10,795.9	-	-	1	4.4	-	-	2,995	10,800.3	-	-
03072	가리비	406	720.2	-	-	-	-	-	-	406	720.2	-	-
03074, 03075	오징어 및 문어	1,979	5,262.2	165	754.3	1	4.4	-	-	1,981	5,266.6	165	754.3
0308	수생 무척추 동물*	826	2,561.1	-	-	-	-	-	-	826	2,561.1	-	-
03081	해삼	439	894.9	-	-	-	-	-	-	439	894.9	-	-
03082	성게	336	1,655.1	-	-	-	-	-	-	336	1,655.1	-	-

* 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 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***참고: 러시아 극동지역 통계청이 10월 이후 통계자료를 아직 업로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.
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참고자료

a) <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>(2021.11.15. 검색)